

QA시스템
聖經研究
시리즈

29

요엘

기독교지혜사

성서연구원

BIBLE RESEARCH GROUP

요 엘 Joel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2:32)

וְהָיָה כָּל אֲשֶׁר-יִקְרָא בְּשֵׁם יְהוָה יִמְלֹט כִּי בָהָר
צִיּוֹן וּבִירוּשָׁלַם תִּהְיֶה פְּלִיטָה כֹּאֲשֶׁר אָמַר יְהוָה
וּבְשָׂרִידִים אֲשֶׁר יְהוָה קָרָא:

요엘 차례

요엘 서론	〈10제〉 ...	211
제 1 장 갑자기 닥친 메뚜기 재앙	〈20제〉 ...	214
제 2 장 이스라엘아 회개하라	〈31제〉 ...	219
제 3 장 원수의 손에서 회복될 이스라엘	〈23제〉 ...	226

요엘 특별 자료 차례

요엘 서론 〈연구 자료〉	요엘이 강조하고 있는 선민 사상(選民思想)	213
제 1 장 〈화보 자료〉	양상한 가지만 남은 무화과나무	218
제 2 장 〈연구 자료〉	원어상(原語上)으로 분류한 메뚜기의 종류	225
제 3 장 〈본장의 요절〉		230

요엘 서론

1. ㉠ 본서의 저자와 명칭을 설명하라.

- ㉠ (1) 본서의 저자는 전통적으로 브두엘의 아들인 '요엘'이라고 인정되어 왔다.
- (2) 왜냐하면 본서의 저자가 서두(序頭)에서 본서의 내용이 요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이다(1:1).
- (3) 그런데 19세기에 자유주의 신학자들 중의 일부는 본서 가운데 1:2-2:27과 2:28-3:21의 저자가 서로 다르다고 주장하며 본서 전체의 요엘 저작설을 부인하였는데 그들의 주장에는 정확한 근거가 없다.
- (4) 그들의 주장에 반해 대부분의 학자들(Calvin, Lange 등)은 본서의 저자는 요엘이며 본서의 내용이 오랫동안 전승 과정(傳承過程)에서 조금 변형되었다는 학설(學說)에 동의하고 있다.
- (5) 그러므로 본서의 저자를 요엘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6) 한편 본서의 명칭은 본서 저자인 요엘의 이름을 따라 '요엘'서(書)로 부르게 되었다.

2. ㉠ 본서가 기록된 연대는 언제인가?

- ㉠ (1) 본서가 기록된 연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유다 왕 요아스의 재위 기간 중인 B. C. 830년경으로 보는 초기 연대설과 바벨론 포로 이후의 페르시아 제국 시대인 B. C. 400년경으로 보는 후기 연대설로 압축해 볼 수 있다.
- (2) 후기 연대설을 주장하는 자들은 본서의 초두에는 다른 예언서들과 달리 유다 왕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음을 보아 본서가 유다 왕국이 멸망(B. C. 586)된 후에 기록되었다고 하며 또한 본문의 '여호와께 수종드는'(1:9;2:17) 등과 같은 몇몇 용어들이 포로 시대 후기의 용어라고 주장한다.
- (3) 그러나 대부분의 신학자들(Keil, Delitzsch, Wünsche 등)은 본서의 3:6-8의 내용이 유다를 공격했던 블레셋에 대해 보복할 것을 예언한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블레셋이 유다를 공격한 때는 여호람(요람)왕 때(B. C. 848-841)였고 유다가 블레셋에게 보복한 때는 웃시아 왕 때(B. C. 790-739)였다.
- (4) 그러므로 대부분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본서의 기록 연대는 B. C. 841-790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 본서의 주제를 설명하라.

- ㉠ (1) 본서에서는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날이 임박했음을 선포하면서 메뚜기의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책(警責)하고 있다.
- (2) 즉 마지막 심판의 날이 임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 (3)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재앙을 통해 경책하시고 또 그들이 회개하고 당신께 돌아올 때 언제나 축복을 주신다(참조, 히 12:7-11).

4. ㉠ 본서에 나오는 '메뚜기'를 해석하는 방법을 설명하라.

- ㉠ (1) 본서에 나오는 '메뚜기'를 해석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
- (2) 첫째는 풍유적 해석 방법으로 본문에 서술된 메뚜기는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곤충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적군을 상징하는 것으로 본다.

- (3) 둘째는 문자적 해석 방법으로 본문에 서술된 메뚜기는 실재하던 동물로서 당시에 메뚜기를 통한 재앙이 실제로 있었다고 해석한다.
- (4) 셋째는 계시적인 해석 방법으로 본문에 서술된 메뚜기 재앙을 당시의 실재하였던 사건으로 보고 그것은 또한 미래에 있을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 (5) 그런데 1:2-4을 보면 메뚜기 재앙이 역사적으로 실재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1:6과 2:4-11을 보면 메뚜기 재앙이 이방 군대의 침략 행위를 상징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세번째의 계시적 해석 방법이 타당하다.

5. **㉠** '성령 강림'에 대한 본서의 예언과 신약 성경과의 관계를 설명하라.

- ㉠** (1) 본서의 저자는 일찌기 특정한 사람에게만 국한되었던 성령 강림이 모든 사람에게 내릴 것을 예언하였다(2: 28-32).
- (2) 한편 베드로는 오순절 때에 군중 위에 내려진 성령 강림 사건(행 2:1-4)이 본서의 예언이 성취된 것임을 선포하였다(행 2:16-21).
- (3) 이처럼 본서의 저자가 성령 강림에 대해 처음 예언함으로써 본서는 성령 시대라고 할 수 있는 신약 시대의 도래(到來)를 선포한 중요한 책이 되었다.

6. **㉠** 본서에 나타난 종말론적(終末論的) 사상을 설명하라.

- ㉠** (1) 본문에 나타난 '여호와와 날이 임박했다'란 표현(1:15;2:1,31;3:14)에서 우리는 요엘의 종말론 사상을 엿볼 수 있다.
- (2) 본서의 저자는 이 표현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왔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3)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본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박했음을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도 깨닫게 해주는 책이다.

7. **㉠** 본서에서는 역사와 예언을 어떻게 연결시키는가?

- ㉠** (1) 본서는 철저히 역사만을 다룬 책도 아니며 또한 예언만을 선포한 책도 아니다.
- (2) 즉 본서에서는 메뚜기 재앙과 같이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통해 미래에 있을 심판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와 각성을 촉구하였다.

8. **㉠** 본서의 내용을 구분해 보라.

- ㉠** (1) 본서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 부분(1:1-2:17)에서는 메뚜기 재앙의 발생과 그로 인한 피해와 참상을 기록하며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
- (2) 한편 둘째 부분(2:18-3:21)에서는 택함 받은 백성들이 회개하면 누리게 될 축복과 원수들로부터의 구원받음 그리고 그 후에 있을 원수들과 택함 받은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다.

9. **㉠** 본서의 대지를 구분하라.

- ㉠** (1) 저자 / 1:1
- (2) 메뚜기 재앙으로 인한 폐허 / 1:2-2:17
 - ① 폐허의 성격 / 1:2-12
 - ② 폐허에 대한 반응 / 1:13-14
 - ③ 폐허의 모습 / 1:15-20
 - ④ 장래의 폐허 예언 / 2:1-11
 - ⑤ 폐허에 관한 권고 / 2:12-17
- (3)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의 약속 / 2:18-3:21
 - ① 즉각적인 구원의 약속 / 2:18-27
 - ② 미래적인 구원의 약속 / 2:28-3:21

10. **㉠** 본서의 요절을 말하라.

- ㉠ '누구든지 여호와와 이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나 여호와와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와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2:32).

연구자료

요엘이 강조하고 있는 선민 사상(選民思想)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이란 공동체로 결속되기 이전부터 특수한 사상을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은총을 받는 선민(選民)이라는 사상이다(창 15:1-21; 17:1-8; 28:10-15; 출 3:1-17; 19:5-8). 이 같은 사상은 이스라엘의 모든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이 한결같이 옹호한 것이기도 하다(사 41:8-10; 렘 31:33; 호 1:10, 11; 말 1:1-3). 물론 유대인들의 이러한 종교적 사상은 본서에도 나와 있다(2:27). 그러나 요엘은 본서에서 이 점을 언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선민이기에 뒤따르는 책임에 관하여 강조하고 있다. 즉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으로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기에 부끄럽지 않기 위하여 선 영적, 도덕적으로 순결성을 지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2:12-14). 특히 요엘은 이 같은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모든 이스라엘 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며 그분께 온 마음을 다하는 자들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다(2:32).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심판 날에 그의 선민은 안전하게 보존될 것이지만 이방 죄인들은 멸절될 것임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도 잊지 않고 있다(3장).

이상과 같은 점에서 우리는 요엘이 강조하고 있는 선민 사상이 어떠한 것인가를 충분히 알 수 있다. 그가 교훈하려고 했던 점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약 2:26)는 야고보의 사상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하여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한편 요엘은 이상과 같이 선민에게 따르는 책임에 관하여서만 강조하는 것으로 본서를 맺고 있지는 않다. 그는 여느 선지자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말세에 그의 선민들에게 부어 주실 성령에 관하여 예언하고 있다(2:28, 29). 이 같은 예언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행 2:16-21). 그리고 이제는 육체적인 제약을 벗어나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언제든지 성령 충만을 체험할 수 있다(참조, 엡 5:18).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커다란 영적 축복이 아닐 수 없다.

제 1 장 갑자기 닥친 메뚜기 재앙

단락구분 1 요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 2-4 메뚜기 재앙의 시작 / 5-12 메뚜기 재앙으로 인한 폐허(廢墟) / 13-14 폐허가 된 이후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 / 15-20 메뚜기 재앙으로 인한 짐상(慘狀)

1 여호와께서 브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이르신 말씀이라

2 늙은 자들이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거민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열조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3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시대에 고할 것이니라

4 낫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늦이 먹고 늦이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5 무릇 취하는 자들이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이 너희는 곡할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6 한 이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라도 그들은 강하고 무수하며 그 이는 사자의 이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7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밍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끊어 말각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8 너희는 애곡하기를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편을 인하여 굶은 베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9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와의 전에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10 밤이 황무하고 토지가 처량하니 곡식이 진하여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11 농부들이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이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

리의 연고라 밤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라도

12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및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인간의 희락이 말랐도다

13 제사장들이 너희는 굶은 베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단에 수종드는 자들이 너희는 곡할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이 너희는 와서 굶은 베를 입고 밤이 맞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전에 드리지 못함이라도

14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여 장로들과 이 땅 모든 거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의 전으로 몰수히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15 오호라 그날이여 여호와와의 날이 가까왔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서 이르리로다

16 식물이 우리 목전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전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17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곳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라도

18 생축이 탄식하고 소 떼가 민망해 하니 이는 풀이 없음이라 양 떼도 피곤하도다

19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오니 불이 거친 들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밭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20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떨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1. ㉠ 본장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 (1) 본장에는 갑자기 닥친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 이스라엘 땅이 황폐하게 된 상황과 온 백성이 제사장들과 함께 통곡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것을 선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2) 즉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하셨던 것이다.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짓고 방황하고 있을 때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당신께로 돌아오게 하신다(참조, 눅 15:11-23).

2. **㉠** 본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르신 말씀인가? (1절)
- ㉡** (1) 본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브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이르신 말씀이다.
 (2)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대언자(代言者)인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도록 그들을 책망하시고 경고하셨던 것이다.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택함 받은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도록 책망과 경고를 하실 뿐만 아니라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교훈해 주신다(사 42:16).
- (4) 이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한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며 책망과 경고를 받을 때에 회개하고, 바른 교훈을 들을 때에 그 교훈을 마음에 새겨 그대로 실천해야 한다.
3. **㉠** 하나님께서 늙은 자들을 먼저 부르신 이유는 무엇인가? (2절)
- ㉡** (1) 그것은 늙은 자들이 오랜 세월 동안 많은 경험을 하였으므로 당시에 닥친 메뚜기 재앙과 같은 무서운 재앙을 경험한 기억이 있는지를 그들에게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2) 즉 하나님께서는 당시의 닥친 메뚜기 재앙이 과거에는 없었던 매우 무섭고 끔찍한 재앙임을 강조하기 위해 노인들을 먼저 부르셨던 것이다.
 (3) 그러므로 이처럼 과거에 없었던 무서운 재앙을 당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이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와 경고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신 8:5).
4. **㉠** 하나님께서는 메뚜기 재앙 사건을 누구에게 전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셨는가? (3절)
- ㉡** (1)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내리신 재앙의 사건을 자손 대대(子孫代代)로 전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셨다.
 (2)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목적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 뿐 아니라 태어날 후손들도 이 재앙을 듣고 다시는 하나님께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악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하여 내리신 경고를 우리도 후손들에게 전하여 그들이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겠다(신 4:9).
5. **㉠** ‘팥종이’, ‘메뚜기’, ‘눗’, ‘황충’이란 어떤 종류의 곤충을 가리키는가? (4절)
- ㉡** (1)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 네 가지 곤충의 이름들은 모두 메뚜기 종류의 곤충을 가리키는 말이다.
 (2) 그런데 한 종류의 곤충인 메뚜기를 네 가지 이름으로 부른 것은 당시에 임한 메뚜기 재앙이 시간 간격을 두고 점진적으로 임한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3)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택한 백성들이 강박하여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할 때 여러 번 경고를 하셔서 그들이 죄를 깨닫도록 돌보신다.
 (4)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악하여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할 때 여러 번 경고하시면서 끝까지 기다리신다(벧후 3:9).
6. **㉠** ‘깨어 울어야 할 자’는 어떤 자들인가? (5절)
- ㉡** (1) 깨어 울어야 할 자들은 술에 취한 자들이다.
 (2) 그런데 여기서 술에 취한 자들이란 타락한 자들을 의미하는데 그들은 이제 닥친 재앙을 보고 회개를 해야 할 자들이라는 뜻이다.
 (3) 이와 같이 오늘날의 타락한 자들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말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한다.
7. **㉠** ‘단 포도주’란 어떤 포도주인가? (5절)
- ㉡** (1) ‘단 포도주’란 히브리어로 <아시스>인데 이는 포도로 만든 싱싱하고 달콤한 주스를 의미한다.

- (2) 이 포도주는 이스라엘 백성이 음료로 사용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생필품(生必需品)이라 할 수 있다.
- (3) 그런데 메뚜기가 모든 과실들을 먹어 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생필품인 단 포도주도 단절될 수밖에 없었다.
-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회개치 않을 때 생계 수단(生計手段)을 끊어서라도 죄를 깨닫게 하신다.

8. **㉠** 메뚜기 재앙의 피해를 암시하기 위해 서술된 두 가지 표현은 무엇인가? (6절)

- ㉠** (1) 하나는 '이족(異族)'이고 다른 하나는 '사자의 이'이다.
- (2) 여기에서 전자(前者)는 수자가 많고 무리(떼)를 지어 다니는 군대라는 면에서 또한 후자(後者)는 강한 강도(強度)를 가지고 있으므로 어떤 종류의 물건이라도 부수어 삼켜 버릴 수 있다는 면에서 각각 메뚜기 떼로 인한 피해를 암시하고 있다.
- (3) 그러므로 이 두 가지의 표현을 통해 당시의 메뚜기 재앙의 파괴력이 얼마나 컸었는지를 우리는 실감할 수 있다.

9. **㉠**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애곡하라고 말씀하셨는가? (8절)

- ㉠** (1) 하나님께서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편을 인하여 굶은 베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애곡하라고 말씀하셨다.
- (2) 이것은 당시 탁친 메뚜기 재앙이 어렸을 때 약혼한 남편이 사망하자 슬피 애곡하는 처녀의 슬픈 맘이나 슬픈 사건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다(렘4:8).

10. **㉠** 제사장들이 슬피한 이유는 무엇인가? (9절)

- ㉠** (1)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제와 전제가 끊어졌으므로 슬피하였다.
- (2)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소제와 전제(출 29:38-41)의 제물들을 통해 그들의 생계를 유지해야 했기 때문이다(레 6:16).
- (3) 그러나 제사장들이 더욱 슬피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 (4) 이와 같이 목회자들은 자신들의 육체적, 물질적 고통보다는 성도들의 어려운 고통에 더 민감해야 한다(히 13:3).

11. **㉠** '애곡하다'라는 표현이 본장에 몇 번 나오는가?

- ㉠** (1) 본장에는 '애곡하다'라는 표현이 6번 나온다(5, 8, 13절).
- (2) 이처럼 하나님께서 각 방면에 종사하는 백성들을 일일이 언급하면서 애곡하라는 명령을 반복하신 이유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우둔하여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 (3) 이와 같이 영적으로 우둔해지면 하나님께서 반복하여 말씀하셔도 그분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게 된다.
- (4)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이 둔해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께 깨어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해야 한다(살전 5:17).

12. **㉠** 농부들이 부끄러워하고 곡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11절)

- ㉠** (1) 그 이유는 밭의 소산(所産)인 밀과 보리가 다 없어졌기 때문이다.
- (2)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생계에 위협을 받을 만큼 어려웠음에도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아니할 정도로 마음이 강박하였다.
- (3)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서도 자신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

13. **㉠**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어떻게 하고 슬피 올라 하셨는가? (13절)

- ㉠** (1)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굶은 베로 동이고 슬피 올라 하셨다.

- (2) 그런데 굵은 베로 동이고 운다는 것은 커다란 슬픔이 있음을 의미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시의 제사장들이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크게 슬퍼하며 회개해야 할 것을 지시하였다.
- (3)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제사장과 같은 우리 성도들은 심하게 타락하고 있는 세상을 보고 책임을 느끼며 민족의 죄악으로 인해 크게 울며 대신 회개해야 한다.

14. ㉠ 하나님께서는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전으로 모두 모여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 (14절)

- ㉠ (1) 여호와께 부르짖으라고 하셨다.
- (2) 이것은 그들이 당한 어려운 재앙을 해결하기 위해 온 백성들이 하나님 전에 모여 합심 기도해야 할 것을 명령하신 것이다.
- (3) 왜냐하면 온 백성이 합심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권능만을 의지할 때에야 비로소 그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 (4)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들 교회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또는 나라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모두 모여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마음을 모아 기도해야 한다(마 18:19).

15. ㉠ ‘그날’이란 어떤 날을 가리키는 말인가? (15절)

- ㉠ (1) ‘그날’이란 여호와의 날을 가리키는 말이다.
- (2) 그런데 여호와의 날이란 장래에 앗수르에 의해 이스라엘이 멸망(B. C. 727-722, 왕하 17:6)할 날과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을 의미한다.
- (3)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면한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가까이는 이스라엘의 멸망과 멀리는 주님의 재림 때의 심판을 예시하셨다.
- (4) 이와 같이 우리도 환난을 겪게 될 때 좌절하기 보다는 그 환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교훈을 깨달아야 하겠다(히 12:11).

16. ㉠ ‘여호와의 날이 가까왔나니’란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15절)

- ㉠ (1) 이 말은 앗수르 군에 의해 이스라엘이 멸망할 날과 주님이 재림하신 날이 가까왔다는 의미이다.
- (2) 즉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멸망의 날이 가까왔으니 각성 하라는 경고를 주고 우리에게는 주님의 재림 때의 심판 날이 가까왔으니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경고를 주는 말이다.
- (3) 이처럼 우리는 본서를 통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깨닫고 주님 맞을 준비를 충실히 하며 살아야겠다(살전 5:1-11).

17. ㉠ ‘식물이 우리 목전(目前)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16절)

- ㉠ (1) 이 말은 식물이 끊어져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 (2) 여기서 식물이란 인간 생존 수단으로 이것이 없다는 사실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10절).
- (3)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 식물이 없어지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전에서는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게 된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곡식이 없으면 성전에 가져갈 소제나 전제를 준비할 수 없기 때문이다(참조, 신 12:6, 7).
- (4) 이처럼 범죄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육체적인 죽음 뿐 아니라 영적인 죽음(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었기 때문)마저도 감수해야만 되었다.
- (5)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 버린 자의 최후는 비참하다.

18. ㉠ 곡식의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는 이유는 무엇인가? (17절)

- ㉠ (1) 지상에 가뭄이 심해서 땅 속에 심겨진 씨가 싹을 내지 못하고 시들어 버리기 때문이다.
- (2) 이러한 현상은 메뚜기 재앙으로 이스라엘을 쓸어 버리신 하나님께서 이제 천재(天災)를 이용하셔서 생명에 대한 조그만한 가능성조차도 없애 버리시려는 당신의 절대적인 의지에서 기인하였다.

(3) 이런 사실을 통해 볼 때 자연의 황폐는 인간의 범죄와 긴밀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창 3:18).

19. **㉠** 이스라엘 내에 있는 가축들은 무엇 때문에 울부짖게 되는가? (18절)

- ㉠** (1) 그들은 물과 풀이 풍부한 초장(草場)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울부짖는다(왕상 18:5).
- (2) 물론 물이 없고 풀이 사라진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결과이다(15-17절).
- (3) 한편 히브리 사상에서는 모든 피조물은 동일한 운명의 소유자들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요엘은 인간의 범죄는 온갖 동물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다(참조, 습 1:2, 3).
- (4) 그런데 동물이라든지 기타 다른 피조계가 고통당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이 되므로 자연계의 탄식은 곧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내리신 징벌이라고 생각된다.

20. **㉠** 선지자는 가뭄을 타는 열기를 어떻게 묘사하였는가? (19, 20절)

- ㉠** (1) 선지자는 가뭄의 극열함에 대해 ‘불’과 ‘불꽃’이라 표현하였는데, 이것은 모든 생물이 전혀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을 가리키는 말이다(렘 9:10).
- (2) 이런 절박한 상황 아래서는 죽음만이 이 땅에 존재할 뿐이다. 즉 소망이라고는 전혀 남아 있지 않은 것 같다.
- (3) 그러나 이런 상황 중에서도 한 가지 희망은 남아 있다.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서 오는 구원을 호소하는 일이다(시 104:21).
- (4) 이처럼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에 그 원인이 자신의 범죄에 의해서든 아니면 또 다른 원인에서든 그것을 불문(不問)하고 제일 먼저 취해야 할 행동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다.
- (5) 하나님은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하더라도 당신의 이름을 의지하고 부르짖는 호소에 귀를 기울이신다(렘 33:3).

화보자료

양상한 가지만 남은 무화과나무. 메뚜기 떼의 습격을 받고난 후 처참한 모양으로 변해버린 무화과나무이다.



본서의 주된 배경은 메뚜기 떼의 습격(4절)과 극심한 가뭄(10-12절)으로 인한 재앙이다. 그러나 요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이러한 재앙은 사라지고 땅은 다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외쳤다(2:12-27).

제 2 장 이스라엘아 회개하라

단락구분 1-11 메뚜기 재앙으로 인한 황폐 / 12-17 이렇게 회개하라 / 18-27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면 받게 될 축복들 / 28-32 준비된 여호와와의 날

1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와의 날이 이르게 됴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2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뿔뿔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새벽 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세에 없으리로다

3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 전의 땅은 황무한 들 같으니 그들을 피한 자가 없도다

4 그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5 그들의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가 병거소리 와도 같고 불꽃이 초개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항오를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6 그 앞에서 만민이 송구하여 하며 무리의 낮빛이 하얗도다

7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더위잡고 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되 그 항오를 어기지 아니하며

8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며 병기를 충돌하고 나아가나 상처 아니하며

9 성중이 뛰어 들어가며 성위에 달리며 집에 더위잡고 오르며 도적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10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일월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11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그 진은 심히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자가 누구이라

12 여호와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13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14 주께서 흑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15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16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케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17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18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19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로 열국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20 내가 복된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전군은 동해로, 그 후군은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21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으로다

22 들짐승들이 두려워 말지어다 들의 풀이 삭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23 시온의 자녀들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24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25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눈과 황충과 뱀종이의 먹은 햇수대로 너희에게 갚아 주리니

26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히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히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27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히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28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29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30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31 여호와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32 누구든지 여호와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1. **㉠ 본장의 중요한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라.**

- ㉠ (1) 본장에서는 전장(前章)에 이어 계속 메뚜기 재앙으로 인한 황폐와 그 황폐보다 더 무서운 일이 닥칠 것을 설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2) 또한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재앙 전에 누리던 낙(樂)을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과 아울러 신약 시대에 있을 성령 강림(행 2:17-21)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딤후 3:15)을 선포하고 있다.
- (3) 우리는 이 선포를 통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미 오래 전부터 하나님에 의해 계획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이다.

2. **㉠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시온에서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가? (1절)**

- ㉠ (1)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시온에서 나팔을 불라고 하셨다.
- (2) 그런데 전통적으로 나팔은 전쟁 때 (민 10:9; 수 6:4; 삼상13:3) 그리고 예배(레 25:9; 민 10:10)나 축제(왕상 1:34) 때에 불었는데 그 당시에는 전쟁을 알리기 위한 경종으로 불었다.
- (3) 그와 같은 경종의 나팔을 불었던 이유는 백성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역사상 일찌기 찾아 볼 수 없었던 큰 재앙을 당했으므로 그 백성들을 긴급히 불러모으기 위해서였다.

3. **㉠ 여호와와의 심판의 날이 어떻게 묘사되었는가? (2절)**

- ㉠ (1) '어둡고 캄캄한 날'로 묘사되었다.
- (2) 그런데 여호와와의 심판의 날이 어둡고 캄캄한 이유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어서 이미 구원에 대한 소망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이는 오늘날의 상황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
- (3)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구원에 대한 소망이 끊어지기 전 지금 빨리 하나님께로 인도해야겠다(사55:6).

4. **㉠ '새벽 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2절)**

- ㉠ (1) 이 말은 동이 틀 때 순식간에 산꼭대기에 빛이 퍼지듯 순식간에 어떤 일이 생기는 것을 의미한다.
- (2) 즉 이것은 적군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섭고도 신속하게 임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 (3) 이와 같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고도 신속하게 임한다.
- (4) 그러므로 우리는 순식간에 임하게 될 그날을 준비하면서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하겠다(마24:42-44).

5. **㉠ 아름답던 시온이 무엇으로 인해 황폐해졌는가? (3절)**

- ㉠ (1) 메뚜기 떼가 시온의 아름다움을 황폐케 하였다. 즉 메뚜기의 습격으로 시온 땅에서 자라나던 식물이 불에 타 버리듯이 순식간에 폐허가 되어 버렸다.

- (2) 이와 같은 사실은 북방 왕의 침입(참조, 절38:15; 단11:40)에 관한 사실을 상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3) 위의 사실이 어느 쪽으로 해석되던 간에 하나님의 노여움으로 죄악 속에서 나날을 보내던 이스라엘이 황폐해진다는 사실을 모두 내포하고 있다.
- (4)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재앙은 순식간에 우리가 가진 것을 모두 없애 버릴 수 있다.
- (5)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재앙으로 인해 쉽게 사라져 버릴 우리의 소유물에 너무 애착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잠23:5).

6. **Q** ‘말’과 ‘기병’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4절)

- A** (1) 여기에서 ‘말’과 ‘기병’은 메뚜기 떼를 상징한다.
- (2) 즉 메뚜기의 머리는 말(馬)의 머리 모습과 비슷하고 메뚜기의 뛰는 모습은 말탄 기병의 뛰는 모습과 비슷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메뚜기를 말과 기병에 비유하셨다.
- (3) 이와 같은 비유를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을 휩쓴 메뚜기 떼가 군대와 같은 무서운 힘을 가지고 그 땅을 정복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7. **Q**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란 말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5절)

- A** (1) 그것은 이스라엘의 적군이 방비가 소홀한 산악 지대로 쳐들어왔던 것을 가리킨다.
- (2)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산악 지대 방비를 소홀히 했던 이유는 험하고 높은 산이니 설마 그곳으로 적군이 쳐들어오겠느냐고 생각하여 안심했기 때문이었다.
- (3) 이와 같이 그들은 하나님보다는 산악 지대라는 자연 조건을 더 믿었다가 화(禍)를 당하고 말았다.
- (4)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가 가진 세상적인 조건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면 반드시 화를 당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잠11:28).

8. **Q** 7, 8절에 나타난 말(馬)들을 통해 무엇을 연상하게 되는가?

- A** (1) 우리는 7, 8절에 나타난 말들을 통하여 잘 훈련된 무서운 군대의 모습을 연상하게 된다.
- (2) 그 이유는 ‘말’에 대한 언급으로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되 그 향오를 어기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여’와 같은 표현들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 (3) 이 ‘말들’은 쳐들어오는 메뚜기 떼가 완벽한 군대처럼 오는 것을 나타냈던 ‘말들’이다.
- (4) 즉 당시의 메뚜기 재앙은 완벽한 군대처럼 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는 감히 방어할 수 없었다.

9. **Q** ‘성을 더위잡고 오르며’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7절)

- A** (1) ‘성을 더위잡고 오르며’란 말은 순식간에 성에 오르는 것을 의미한다.
- (2) 이것은 날랜 무사가 순식간에 성을 타고 올라 정복하듯이 메뚜기 떼가 순식간에 성을 올라 정복하는 모습을 묘사한 말이다.
- (3)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을 통해 하나님의 재앙은 순식간에 무섭게 임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참조, 욕34:20).

10. **Q** 메뚜기 재앙이 닦쳤던 날 하늘과 땅은 어떻게 되었는가? (10절)

- A** (1) 하늘은 떨고 땅은 진동하였다.
- (2) 이것은 메뚜기 재앙이 너무나 무섭고도 두렵게 닦쳤기 때문에 그 재앙이 닦쳤던 날은 자연도 무서워 떨 정도였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 (3) 우리는 이것을 통해 메뚜기 재앙이 얼마나 무섭고도 두렵게 임했는가를 알 수 있다.

11. **Q**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되’란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1절)

- A** (1) 이 말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실 때 그들의 적국인 앗수르를 사용하실 것을 표현한 말이다.

- (2)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이 죄를 짓고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그 백성의 적국의 군대라도 사용하셔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신다.
- (3)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죄를 짓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원수라도 사용하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신다(시5:8).

12. ㉠ ‘이제라도’ 라는 말 속에 담긴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12절)

- ㉠ (1) ‘이제라도’ 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지극히 큰 인내와 사랑을 가지고 제신 분이라는 영적 교훈이 담겨 있다.
- (2)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때뚜기 재앙을 당하고서도 회개치 않았을 때 금방 그들을 죽여 버리지 않으시고 이제라도 울며 회개하라고 권고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이다.
- (3) 우리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오래 참으시며 또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신가를 알 수 있다(롬9:22).

13. ㉠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당신께로 돌아오라고 하셨는가? (13절)

- ㉠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고 하셨다.
- (2) 이 말은 회개할 때 남에게 보이기 위해 외식(外飾)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아시도록 애통해 하는 심중(心中)으로 하라는 의미이다.
- (3) 이것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외식적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로 하시는 말씀이다(마7:5).
- (4) 마찬가지로 우리도 회개할 때 외식적으로 하지 말고 참으로 애통한 심령으로 간절하게 해야 한다.

14. ㉠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란 말의 뜻은 무엇인가? (14절)

- ㉠ (1) 이 말의 히브리 원어의 뜻은 ‘돌이키시고 뉘우쳐’로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행하신 일을 돌이켜 뉘우치셨다는 말이다.
- (2) 그러나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행하신 일에 어떤 잘못이 있어서 후회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벌받는 것을 섭섭하고 측은하게 여기셨다는 뜻이다.
- (3)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가를 깨닫게 된다(시86:15).

15. ㉠ ‘백성을 모아 그 회(會)를 거룩케 하고’ 란 말의 뜻은 무엇인가? (16절)

- ㉠ (1) 이 말은 회개하기 위해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 정결 의식을 가지라는 뜻이다.
- (2)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누구나 먼저 손을 씻어야 했으며 제단 일을 맡아보는 자들은 부부 관계를 삼가야 하는 정결 의식을 가져야 했는데 바로 그 의식을 가지라는 것이다(참조, 레21장).

16. ㉠ 하나님께서 ‘소아(小兒)와 젖먹는 자’ 까지 성전에 모으신 이유는 무엇인가? (16절)

- ㉠ (1) 하나님께서 소아와 젖먹는 자까지 성전으로 모으신 이유는 그들 부모의 범죄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다.
- (2) 즉 큰 죄를 범하지 않았던 어린 자녀들도 부모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함께 징벌을 받을 처지에 있기에 이제는 그들도 부모들과 함께 회개하기 위해 성전에 나와야만 했던 것이다.
- (3) 그러므로 부모들은 그러한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컸었던가를 깊이 깨닫게 되었을 것이다.

17. ㉠ 하나님께서 신랑과 신부까지도 성회에 참석하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16절)

- ㉠ (1) 그것은 당시의 성회가 매우 중요한 성회였기 때문이었다.
- (2) 원래 새로 아내를 취한 신랑은 군대도 가지 않고 직무도 맡지 않았으며 1년 동안 한

가히 집에 거하며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하도록 율법에 기록되어 있었다(신24:5).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도 성회에 참석하도록 하신 것을 통해 볼 때 당시의 그 성회는 율법을 지켜야 할 것 이상으로 중요한 성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8. **㉠** '낭실'과 '단'은 각각 어디를 가리키는 말인가? (17절)

- ㉠** (1) '낭실'은 성전의 동쪽 출입구, 즉 현관을, '단'은 성전의 뜰에 위치한 번제단을 가리킨다.
 (2) 그런데 제사장들은 이 낭실과 단 사이에서 기도하곤 했다(참조, 대하8:12; 켈8:16).

19. **㉠** 낭실과 단 사이에 선 제사장들은 먼저 무엇을 간구했는가? (17절)

- ㉠** (1) 낭실과 단 사이에 선 제사장들은 먼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을 간구했다.
 (2) 왜냐하면 당시의 이스라엘이 지은 죄는 너무나 컸으므로 먼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심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3)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죄를 자복할 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을 간구해야 한다(롬 11:31).

20. **㉠** '중심이 뜨거우시며'란 말의 뜻은 무엇인가? (18절)

- ㉠** (1) '중심이 뜨겁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네>로서 '시기하다'라는 뜻이다.
 (2)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서운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을 징벌하셨으나 그들이 회개함을 보셨을 때 그들에 대한 애정이 되살아나셨을 뿐 아니라 재앙으로 황폐된 땅을 보시고 그 땅을 침범하였던 적군들을 미워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음을 가리키는 말이다.
 (3) 우리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다(렘31:3).

21. **㉠** 하나님께서는 복편 군대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가? (20절)

- ㉠** (1) 하나님께서는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그들을 쫓아내시겠다고 약속하셨다.
 (2) 여기서 복편 군대란 이스라엘 북쪽에 살던 앗수르로서 장래에 이스라엘에 침입하여 그들을 괴롭힐 군대를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앗수르 군대를 쫓아내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이다.
 (3) 즉 하나님께서는 앗수르 군대가 침략했을 때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범죄를 회개하고 당신에게로 돌아오면 그 군대를 물리쳐 주시겠다고 선포하셨다.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에게 그들이 당신께 돌아오기를 굳은 약속을 통하여 권고하신다(수1:9).

22. **㉠** 하나님께서는 땅을 향해 어떻게 하라고 외치셨는가? (21절)

- ㉠** (1)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외치셨다.
 (2) 이처럼 하나님께서 무생물인 땅을 향해 외치신 이유는 당신이 내리신 축복이 무생물인 땅이라도 기뻐할 만큼 놀라운 것이었기 때문이었다(시 126:2, 3).
 (3) 우리는 이 표현을 통해 메뚜기 재앙 이후 하나님의 회복으로 그 땅이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를 짐작해 볼 수 있다.

23.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하셨는가? (23절)

- ㉠**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하셨다.
 (2) 즉 짐승들은 먹을 수 있는 먹이가 다시 생겼기 때문에 기뻐했지만(22절), 이스라엘 백성은 기쁨의 근원되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라는 것이다.
 (3) 또한 우리에게 먹을 것이 풍족하여서가 아니라 기쁨의 근원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

께 계시므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는 교훈을 준다.

(4)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을 것도 자연스럽게 채워 주신다(마 6:23).

24. ㉠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족히 먹고 난 후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가? (26절)

㉠ (1)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먹게 하신 당신의 이름을 찬송하라고 하셨다.

(2)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모든 먹을 것이 당신께로부터 나왔음을 알게 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함이었다.

(3) 이처럼 우리도 먹고 마실 때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딤펴전 4:4).

25.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겠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27절)

㉠ (1)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어(참조, 3:17, 21; 신 7:21)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시겠다(참조, 출 16:12; 겔 28:26)는 뜻이다.

(2)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히 수치를 당치 않게 될 것이다.

(3) 이와 마찬가지로 택한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므로 영원히 수치를 당치 않게 될 것이다(호 13:4).

26. ㉠ ‘그 후에’란 무엇을 뜻하는가? (28절)

㉠ (1) 이것은 히브리어로(아하레켄)인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라는 뜻이다.

(2) 그러므로 본문은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면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는 의미이다.

(3) 그리고 이 말은 성령 강림(행 2:17-21) 사건이 있었던 신약 시대를 가리킨다.

27. ㉠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神)을 누구에게 부어 주시겠다고 하셨는가? (28절)

㉠ (1)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을 만민에게 부어 주시겠다고 하셨다.

(2) 이것은 특정한 때에 특정한 사람에게만 임했던(민 24:2; 대상 12:18; 겔 11:5) 하나님의 계시가 남녀 노소는 물론 종(노예)에게도 임할 것을 선포하는 말이었다.

(3) 그런데 이 예언은 신약 시대에 이르러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행 2:17-21)으로 성취되었음을 알 수 있다.

28. ㉠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란 말의 뜻은 무엇인가? (29절)

㉠ (1) 이 말은 하나님께서 심지어 남종들과 여종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실 것이라는 뜻이다.

(2) 즉 이 말은 사회 계급의 차별 없이 노예들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을 받는 축복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3) 이것은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주인과 종의 차별 없이 성령을 받아 중생하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예언한 말이다(갈 3:28, 29; 골 3:11).

(4) 이처럼 큰 은혜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은혜에 늘 감격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겠다.

29. ㉠ ‘피’, ‘불’, ‘연기 기둥’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30절)

㉠ (1) 이것들은 하나님의 대심판이 이르기 전에 있을 전쟁으로 말미암은 재화(災禍)를 의미한다(막 13:7, 8).

(2) 그런데 이와 같은 전쟁으로 말미암은 재화는 오늘날 세계 도처에서 발생되고 있다.

(3)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후에 신분의 관계 없이 성령을 받아 중생하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예언한 말이다(갈 3:28, 29; 골 3:11).

(4)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배풀며 믿음과 소망을 굳게 지켜야 하겠다(히10:24,25).

30. ㉠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는가? (32절)

- ㉠ (1)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2)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란 하나님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또한 그분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를 말한다(롬 10:9, 13).
 (3) 물론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분명히 성령의 감동으로 되는 일이다.

31. ㉠ '여호와와의 부름을 받은 자'란 어떤 자(者)를 의미하는가? (32절)

- ㉠ (1) '여호와와의 부름을 받은 자'란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자를 의미한다(엡1:4).
 (2) 즉 이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므로 결국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3)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우리의 의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 되어진 것임을 깨닫고 고마우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겠다(롬9:11).

연구자료

원어상(原語上)으로 분류한 메뚜기의 종류

본서(25절; 1:4)에 나오는 '팻종이', '메뚜기', '눗', '황충'이 넷은 메뚜기를 가리키는 각기 다른 네 개의 히브리어를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것 외에도 다섯 개의 히브리어가 더 있으니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까잠> : 본서에는 '팻종이'로 번역되어 있다(25절; 1:4). 암 4:9에도 나온다.
 ② <아르베> : 본서에는 '메뚜기'로 번역되어 있지만 시 105:34; 렘 46:23에는 '황충'으로 번역되어 있다.
 ③ <엘레크> : 본서와 나 3:15에는 '눗'으로 나와 있지만 렘 51:14에는 '황충'으로 나와 있다.
 ④ <하실> : '삼켜 버리는 메뚜기'란 뜻인데 본서에는 '황충'으로 번역되어 있다.
 ⑤ <쌀르암> : 레 11:22에 나오는데 '베짱이'로 번역되어 있다.
 ⑥ <하르꿀> : 우리말로는 '귀뚜라미'로 번역되어 있다(레 11:22).
 ⑦ <하갈> : 레 11:22에는 '메뚜기'로 번역되어 있다.
 ⑧ <곱> : '큰 메뚜기'란 뜻이다(나 3:17).
 ⑨ <첼르찰> : '휘 날다'라는 뜻인데 신 28:42에 '메뚜기'로 소개되어 있다.

제 3 장 원수의 손에서 회복될 이스라엘

단락구분 1-8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향한 심판 / 9-13 심판의 형편 / 14-17 여호와의 심판의 날 / 18-21 심판 후 이스라엘과 영원히 함께 계시실 하나님

1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2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국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흠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3 또 제비뿔아 내 백성을 취하고 동남으로 기생을 바꾸며 동너로 술을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4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의 보복하는 것을 내가 속속히 너희 머리에 들리리니

5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취하고 나의 진기한 보물을 너희 신궁으로 가져갔으며

6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본 지경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7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의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8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나 여호와와 말하였느니라

9 너희는 열국이 이렇게 광포할지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무사로 다 가까이 나아와서 올라오게 할지이다

10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이다

11 사면의 열국이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12 열국은 동하여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 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열국을 다 심판하리니

13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 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큼이로다

14 사람이 많음이며,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며, 판결 골짜기에 여호와와 날이 가까움이로다

15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16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발하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되리로다 그러나 나 여호와와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17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거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18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와 전에서 샘이 흘러 나와서 식담 골짜기에 대리라

19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강포를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20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21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 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 주리니 이는 나 여호와와 시온에 거함이니라

I. ㉠ 본장의 내용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 (1) 본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후 그들과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이 기록되어 있다.

(2)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선포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운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또한 그분만을 신뢰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였다.

- (3)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깨달아 하나님만 신뢰 하며 살아야 한다(시31:14).
2. **Q** '돌아오게 할 그때'라는 말 속에 담긴 영적 의미는 무엇인가? (1절)
- A** (1) 이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때를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이 고난받을 기한 역시 정해 놓으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 (2) 즉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까지 당신의 백성들이 고난받도록 하신 후에 그때가 되면 그 고난에서부터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다.
- (3) 그러므로 우리도 지금 우리에게 고난이 임하여 있다고 해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거두어 가실 것을 생각하여 낙심하지 않아야 한다(고후4:17;7:4).
3. **Q**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서 열방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는가? (2절)
- A** (1)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열방을 심판하시기로 하셨다.
- (2) 그곳은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이방 군대를 물리친 골짜기(대하 20:26)를 가리킨다.
- (3)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곳이 장래에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을 심판하실 장소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
- (4) 왜냐하면 위와 같은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하여 지금도 살아 계신 하나님의 사역이 반드시 실현될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였다. 하나님은 영원한 통치자이시며 심판자로서 이 땅에 군림하신다(시146:6-9).
4. **Q** '국문(鞫問) 하리니'란 말의 뜻은 무엇인가? (2절)
- A** (1) '국문하리니'란 말은 범죄한 사람에게 벌을 내리기 위해 심문한다는 뜻이다.
- (2) 그런데 이 말은 최후 심판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실토하여 정죄받게 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 (3) 결국 이것은 우리가 최후 심판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되므로 그때에 부끄럼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 세상에서 살 때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고전3:15).
5. **Q**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의 동남(童男)과 동녀(童女)를 어떻게 하였는가? (3절)
- A** (1) 그들은 동남으로는 기생을 바꾸었고, 동녀로는 술을 바꾸어 마셨다.
- (2) 이것은 이방인들이 술을 마시고 정욕을 채우기 위해 포로인 이스라엘 어린이들을 화대(花代)로 사용한 것을 의미한다.
- (3) 이처럼 이방인들은 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당하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6. **Q**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을 향하여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가? (4절)
- A** (1) 하나님께서는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을 향하여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 (2) 그런데 여기에 언급된 도시들은 베니게의 여러 도시들, 즉 두로, 시돈, 블레셋의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삼상 6:17, 18) 등을 말하는데 이 도시들의 사람들은 모두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미워해 온 사람들이었다.
- (3)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부르고 계시는 것이다.
7. **Q**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의 보복하는 것을 내가 속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4절)
- A** (1)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고통을 당신이 직접 당하시는 것처럼 표현 하시면서 그 원수들에게 보복하실 것을 선포하신 말씀이다.
- (2)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운 고통을 당할 때에도 보응자(報應者)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위로받게 하기 위해서였다(시121:1, 2).

(3)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어려운 고통을 당할지라도 낙심치 말고 위로 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고후1:6).

8. **㉠** 이방 족속은 이스라엘에게서 무엇을 훔쳐 갔는가? (5절)

- ㉠** (1) 이방 족속은 은과 금 그리고 진기한 보물을 훔쳐 자기 나라의 신궁(神宮)으로 가져갔다(대하 21:17).
- (2) 그런데 여기서 이방 족속은 불레셋을 가리키고, 그들이 도적질할 때 그들을 도와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은 지중해 동쪽 연안의 팔레스틴 북쪽에 위치한 국가, 즉 베니게인들이었다.
- (3)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기구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귀중품과 사람들을 노략해 갔던 것은 단순한 침략이었다기 보다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행위였다.
- (4) 하나님은 이러한 도전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보응을 철저히 행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다.

9. **㉠** 이방 족속은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어느 족속에게 팔았는가? (6절)

- ㉠** (1) 이방 족속은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았다.
- (2)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방 족속은 두로인들로 그들은 원래 솔로몬 왕과 계약을 맺어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팔고 사지 않기로 했었는데(참조, 삼하5:11; 왕상5:1-12; 9:13), 그 계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 넘긴 것이다.
- (3) 이처럼 두로인은 계약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보복하시겠다고 선포하신 것이다(4절).

10. **㉠**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일으켜 나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가? (7절)

- ㉠**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로인들이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 (2) 즉 두로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도말(塗抹)하기 위해 먼 지방 노예로 팔아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먼 거리로부터 본향 이스라엘 땅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의미이다.
- (3)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번 택한 백성은 결코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애 3:31).

11. **㉠**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란 말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8절)

- ㉠** (1)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한 이방 족속이 범죄한 그대로 보응당할 것을 가리킨다.
- (2) 결국 이 예언은 시돈 사람들은 바벨론으로(B. C. 345, 아닥사스다 3세 때), 두로 사람들은 마케도니아로(B.C.334, 알렉산더 대왕 때) 각각 포로되어 잡혀감으로써 성취되었다.
-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시다(민 23:19).

12. **㉠**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광포(廣布) 하라고 명하셨는가? (9절)

- ㉠**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광포하라고 명하셨다.
- (2)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소국(弱小國)인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광포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전쟁의 승패(勝敗)는 인간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였다(삼상 17:47).
- (3) 즉 조건으로 보아서는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서 이길 가망이 없지만 전능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므로 전쟁을 하면 당연히 이길 것이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전쟁을 준비

하라는 것이다.

(4)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전쟁과 같은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만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요일 4:4).

13. **㉠**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10절)

- ㉠** (1) 이 말은 이방 민족들에게 전쟁 준비에 국력을 모두 기울이라고 선포하신 말씀이다.
 (2) 즉 이방 백성들은 유사시(有事時)에 생업이었던 농사일을 그만두고서라도 그와 같이 전쟁을 준비하라는 것이다.
 (3)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이유는 이방 백성들이 총력을 기울여도 하나님께 대항하여서는 이길 수 없음을 선포하시기 위해서였다(잠 21:31).

14. **㉠**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에서 ‘그리’ 는 어느 곳을 말하는가? (11절)

- ㉠** (1) 그곳은 여호사밧 골짜기를 말한다.
 (2) 더 자세한 내용은 **㉠** 3을 참조하라.

15. **㉠** ‘뱀을 지어다’, ‘가득히 차고’, ‘독이 넘치니’ 와 같은 표현들은 어떤 것을 가리키는 말들인가? (13절)

- ㉠** (1) 그런 표현들은 이방 국가들의 악이 큼을 가리키는 말들이다.
 (2)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표현들을 쓰신 이유는 이방 국가들의 악이 크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다.
 (3) 이처럼 이방 국가 백성들은 자신들의 악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계 14:14-20).

16. **㉠** 판결 골짜기에 많은 사람이 모일 날은 어느 날인가? (14절)

- ㉠** (1) 그날은 여호와와 의 날이다.
 (2) 더 자세한 내용은 **㉠** 15를 참조하라.

17. **㉠** ‘해와 달이 캄캄하여 별들이 그 빛을 거두는’ 날은 어떤 날을 의미하는가? (15절)

- ㉠** (1) ‘해와 달이 캄캄하여 별들이 그 빛을 거두는’ 날은 여호와와의 심판의 날이다.
 (2) 더 자세한 내용은 2장의 **㉠** 3을 참조하라.

18. **㉠** 하나님께서 심판의 목소리를 발(發)하실 때 하늘과 땅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어떻게 되는가? (16절)

- ㉠** (1) 하나님께서 심판의 목소리를 발하실 때 하늘과 땅은 진동하고 이스라엘 자손은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하게 된다.
 (2)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이방 백성은 큰 공포 아래서 엄벌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통해 보호받게 될 것을 의미한다.
 (3)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큰 구원의 날이 된다는 것을 믿으면서 그날이 어서 속히 오기를 소망해야겠다(계 22:20).

19.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피난처와 산성이 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17절)

- ㉠** (1)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피난처와 산성이 되시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이다.
 (2)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고난을 주시고, 회복하시어 축복하시고, 이방 백성들과 구별하여 구원하시는 이유는 자신의 어떤 큰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이다(출 16:12).
 (3)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함으로써 그분을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20. **㉠** 18절의 표현들은 어떤 것을 묘사하는 말들인가? (18절)

Ⓐ (1) 그것들은 하나님의 심판 후에 있게 될 일들로 하나님이 주실 풍요함을 묘사하는 말이다(시 72:7).

(2) 그런데 이 풍요는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만이 아니라 영적인 풍요도 가리킨다.

(3)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표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심판 후에 우리에게 공급하시려고 물질적인 그리고 영적인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1. ⓐ 애굽은 황무지가 되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19절)

Ⓐ (1) 그것은 애굽인들과 에돔인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강포(強暴)를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기 때문이다.

(2) 이것은 남의 생명을 빼앗는 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율법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창 9:4-6)는 교훈을 우리에게 준다.

(3) 그러므로 우리는 남의 생명을 해치지 말아야 할 뿐 아니라 남을 미워해도 안 된다. 남을 미워하는 자는 이미 영적으로 살인한 것과 같기 때문이다(요일 3:15).

22. ⓐ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20절)

Ⓐ (1) 하나님께서는 유다는 영원히 있었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겠다고 약속하셨다.

(2) 그런데 여기서 ‘유다’와 ‘예루살렘’은 신약 시대의 교회를 그리고 ‘영원히’나 ‘대대로’는 이 세상의 종말을 가리키는 말이다.

(3) 즉 하나님께서는 신약 시대의 교회가 이 세상 종말 때까지 존속케 될 것을 약속하신 것이다.

(4) 그러므로 세상 마지막 때에 아무리 악의 권세가 강해도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 존립할 것이다(마 16:18).

23. ⓐ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흘림 당한 것을 갚아 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 주리니’ 라는 말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21절)

Ⓐ (1)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원수들에게 억울하게 당하는 것을 수시로 보용하지 않으시고 일정한 시기에 이르러서야 그 일을 하실 것을 가리킨다(계 6:9-11).

(2) 또한 이것은 우리가 이유없이 억울함을 당하게 될 때 그 억울함을 보용할 때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위로받으라는 영적 의미를 갖고 있다.

(3)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이유없이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그 억울함을 갚아 주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엡 3:13).

본장의 요점

‘사람이 많음이며,
판결 끝짜기에 사람이 많음이며,
판결 끝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라다’ (14절)

